

연수도시 우뚝 · 향기경제 발판 마련

3년 시정 성과 ‘곶직’

“정읍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읍을 만들 수 있는 씨 뿌리기에 집중했고 곶직한 성과도 많았다. 이후에도 더 많은 씨들이 좋은 꽃을 피우고 튼실한 과실(果實)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오는 7월 1일자로 민선 7기 정읍시장 취임 3주년을 맞는 유진섭 시장은 아쉬움도 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둬 뿌듯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취임 직후의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나 정읍이 주장해온 ‘화포현 전승일(5월 11일)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8월 22일 문화제 지킴이의 날(6월 22일)은 임진왜란 당시 정읍의 선비인 안의와 손홍록 등이 실록을 전란의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전주 경기전 사고에서 내장산 용굴암 등으로 옮긴 날이다. 이후 정읍인들이 1년이 넘도록 지켜낸 실록을 후세에 전해져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인의 문화제가 됐다) 제정’ 등의 성과가 민선 7기 시정 운영의 강력한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삼아 52개 기업 6,247억원의 유치(분양 계약 및 가동 27개 기업 3,338억원) 및 투자협약(25개 기업 2,909억원)을 이끌어냈고 연수도시 기반 구축 등 곶직곶직한 결실을 거뒀다는 설명이다. 유시장은 남은 임기에도 정읍시민 모두의 화합을 통해 구상하고 추진해온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오며 민선 7기 3주년 정읍시정의 주요 성과를 조목조목 짚었다.



용산호 승천용 분수

시민 모두가 안전한 정읍, 건강한 정읍농업·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편리한 교통망 구축,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상수도 스마트 시스템과 정읍천과 고부천의 실시간 수위 정보를 기반으로 배수문을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저수지 준설작업과 스마트 저수지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재해예방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읍시와 11가 협업체 추진하는 수성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과 신태인읍 행정문화 복합센터 신축, 치매 안심센터 운영도 눈에 띄는 성과들이다. 농업분야 성과도 이어졌다. 지난해 1만672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 총 64억 300만원을 지급했다. 임산물체협단지화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도 준공했다. 양돈사 약취 저감 지원 약취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축산위생 저감 대책 추진 5개년 계획 일환으로 전자산 가축기기를 이용한 약취 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위생 없는 쾌적한 정읍을 만드는 데 구성이다.

공약사업 29개 사업 완료 등 추진율 72%

민선 7기 정읍시의 공약사업은 5개 분야 77개 사업이다. 임기 내 완료 60건, 임기 후 완료가 17건. 공약사업 추진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72%이다.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유아 숲 체험원 조성 등 20건은 완료됐고 용산호 복합 힐링 레저공간 조성 등 정읍 스포츠타운 건설 등 44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다만 3건이 부진, 1건이 보류돼 있다. 부진 3건은 ▲첨단과학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읍 대표 상징 조형물 설치 ▲공시중단 건축물(한교아파트) 정비사업이다. 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스마트 그린산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정읍 대표 상징 조형물 설치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진 한교아파트 정비는 사업 주체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채권 분쟁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류사업인 한우메이커리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여건과 기대효과 등을 분석 중으로 하반기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유치 등 연수 도시로 우뚝

국민연금공단 연수원과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유치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이전 본격 추진 등 연수 도시로서 기반을 다졌다.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은 지난 15일 건립을 위한 양 기관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부진동 일원에 총사업비 480여 원을 투입, 2023년 준공 예정이다.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은 총사업비 500여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022년 말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은 신성동 첨단과학산업단지 2024년 이전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내장산생태탐방원은 2019년 11월 개원 후 운영 중이고(쥬리트리프트에서 용산호 일원에 건립 중인 숙박시설은 이달 준공 예정)이다. 매일내장산전리클럽도 조만간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에 들어갈 계획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다. 이들 연수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방문객 유입 등에 따라 매년 400여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정읍인의 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읍시정은 특히 돋보였다. 유 시장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내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위해 목숨 바쳤던 정읍인들의 정신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나눔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 공동체 정신을 통해 양지마을 집단격리 사태 등 여러 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것. 물론 근간에는 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있었다. 시는 소상공인 6,332개소에 31억2,900만 원을,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13억1,510만원과 정부 재난지원금 408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엔 양지마을 주민 26가구 4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2,200만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밖에 상하수도요금 50% 일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 경제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명성을 지켰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모두 52개 기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쥬리트리프트는 연간 300량의 전동차를 생산하고 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등박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SK넥셀리스는 정읍 5,6공장

중추과 관련 2,413억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동물약품 기업인 케어사이드도 500여 규모의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인 ‘정향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자금 역의 유출 방지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정읍의 향기로 정읍의 미래를 열다!

유 시장은 ‘정향누리 향기공화국’을 민선 7기 후반기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향누리’는 정읍의 향기를 뜻하는 정향(井香)과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누리를 합친 말이다. 정읍의 인문학, 문화적, 정신적·자연적 자산을 정향(井香), 즉 정읍의 향기라 명명했고 크게 인향(人香), 성향(聲香), 주향(酒香), 미향(味香), 화향(花香) 모두 오향(五香)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 시장이 향기를 도입한 이유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침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안을 찾기 위해 골몰했던 유 시장은 ‘향기 산업’을 앞으로 100년간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벚꽃과 라벤더, 구절초, 상화화 등 다양한 향기 자원을 활용해 힐링과 치유를 산업화하고 향기 산업을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세웠다. 관련해서는 향기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시행해 아로마 테라피센터 조성, 라벤더 향기 자원 진흥 특구 추진 등 5개 분야 3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편리한 도로망 구축, 용산호 일원 정읍 대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 국민연금 연수원 유치로 연수 도시로서 기반 다져 하반기 핵심 ‘정향누리’ 5개 분야 30개 사업 발굴 추진 용산호 생태 공간 조성 구상

포 관광지로 변모 준비 끝

편리한 도로망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C·라다리와 서부산업도로를 개통했고 첨단산업단지 연결 도로와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공사 준공, 정읍천 교량 가각정비(하모교, 죽림교, 초산교) 공사도 완료했다. 특히 C·라다리는 이간경관 조성을 통해 문화공연과 각종 행사 개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볼거리와 즐길 거리, 상징성 등을 담은 정읍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용산호와 내장산 리조트 일원을 생태·문화 체험 대표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용산호 조형물 실시설계 용역과 용산호 생태 문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을 완료했다. 용산동 산 50번지 일원 약 36ha 부지에 189억 원을 투입 내장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고 정읍시공원과 아양산림을 연계한 ‘정읍시공원 레포츠 숲길’도 조성한다. 내장산 문화관광 내에 있는 전북 최대 규모의 실내형 복합놀이 시설인 ‘천사 히어로즈’와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임산물체협단지도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정읍, 역사와 문화를 정읍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 결실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운영, 청년메이커센터 신축, 슈메이커 양성사업 등을 통해 14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침체한 구도심에 청년 메이커센터와 창업 힐링자음을 구축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기여했다. 역사와 문화 분야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됐다.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 경관 개선과 보존관리, 관광 환경 조성에 정성을 기울이고,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신축을 추진 중이다. 화포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다양한 선양사업 추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세계 동학 민중 포럼과 사발통문 권역 정비, 전통준 장군 동상 재건립, 동학농민혁명 탐방길과 길방 공원을 추가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액 국비로 380억원이 투입해 화포현전적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유진섭 시장에게 듣는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땀 것이 많은 결실 얻어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왔고 연수 도시 기반 구축과 5년 연속 전북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등 많은 결실을 거뒀다.” 지난 3년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자랑한 유진섭 정읍시장은 많은 성과를 거둬 뿌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했던 사업들이 이상 없이 계획대로 진행 중인지 등을 점검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가속도를 붙일 사업들을 챙기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에는 주력한 시정 운영 방향도 상세하게 밝혔다.

“탄탄한 관광 인프라 구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장점 활용 더 많은 우량기업 유치 축산악취 회자된 것은 아쉬워”

우선 임산물체협단지와 천사 히어로즈, 내장산자연휴양림 등 완료 또는 구상 중인 사업들을 잘 연계하고 추진하는 등 탄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자주재원 확충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년 연속 기업하

기 좋은 도시에 선정된 장점 등을 충분히 알리고 활용해서 더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랫동안 정읍의 이미지가 ‘축산악취’로 회자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유 시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농식품부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 추진과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 향기 자원 시료 참가제와 축산탈취제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치유와 힐링 가능한 ‘향기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민선 7기 후반기 시정의 핵심인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관련 사

업 추진도 가속화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의 일환으로 향기도 시 브랜드화를 통한 사계절 향기 나는 도시 육성과 아로마테라피센터, 도심권 향기북화거리 조성 등 향기 콘텐츠 사업 개발 등에 주력하는 물론 경관 농업과 제조관광?서비스 등 분야별 향기경제 주체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특히 적극 행정에 대한 소신도 힘주어 강조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면 불합야 부정이 아닌 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유 시장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관련해 유 시장은 규제와 관행의 혁신,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 등 공직자는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서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